

# 01 조형 요소와 원리 들여다보기

## 교수·학습 계획 조형 요소와 원리의 이해

차시	1차시	교과서 쪽수	2~5쪽
수업 목표	1.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기 2. 미술 작품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하고 그 시각적 효과 분석하기		
준비물	교과서, 활동지, 필기도구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단원 관련 동기 유발 영상을 활용하여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가?
  - 작품을 어떻게 제작하였는가?
  - 제작된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시각적 특징은 무엇인가?

- 전개**
- ① 작품을 구성하는 조형 요소 이해하기
    - 교과서 예시 작품을 토대로 조형 요소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한다.
    -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조형 요소를 찾고 그 외에 다른 조형 요소를 추가로 찾아본다.
  - ② 생명을 불어 넣는 조형 원리 이해하기
    - 교과서 예시 작품을 토대로 조형 원리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한다.
    - 작품의 시각적인 특징을 더 강하게 만드는 조형 원리를 알아보고 그 시각적 효과를 찾아본다.

- 정리**
- 교과서의 다른 단원에 수록된 작품을 보고 조형 요소와 원리를 분석해 보며 배운 내용을 점검한다.
  - 작품을 창작하는 데 조형 요소와 원리가 어떤 시각적 효과와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눈다.

**지도상의 유의점** 작품별로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고훈상도 사진 파일과 동영상 상을 제공한다.

	평가 내용	평가 수준
평가 요소	조형 요소의 종류와 특징을 각각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작품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를 각각 설명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작품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가 주는 시각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평가 방법	관찰법, 체크리스트	

### 교과서 작품 해설

#### 1 쿡, 반고흐

쿡은 타자기를 이용하여 인물화와 풍경화 등을 그리는 작가이다. 타자를 치는 간격, 반복해서 위에 겹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글자 모양의 작은 점들이 모여 그림을 만들어 낸다.

**1** 미술을 향한 첫걸음

# 01 조형 요소와 원리 들여다보기

1 예술 작품을 주변 환경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2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1 예시 작품과 주변 환경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2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어떤 특징이 가장 눈에 띄는가?”

**2** 작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형 요소

똑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그 모양과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미술 작품도 사용한 재료에 따라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다. 이렇게 작품의 개성을 만들어 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조형 요소라고 한다. 다양한 작품에 적용된 조형 요소를 찾아보고 그 느낌과 효과를 살펴보자.

**조형 요소의 종류**  
점 선 면 형 색 질감 양감 명암

▶ 리카손(Lisson, Dmitry) 작가(1969~) 사탕이 예술(앤디 워홀의 100x100cm/2022년 단색의 색 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 넣어 머그 컵의 작품을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표현 활동 더하기**

- 자기 이름 도장을 반복적으로 찍어 초상화 그리기
- 글자 스티커를 반복해서 붙여 그리기

#### 2 아전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는 여행지가 아니지만 푸르고 커다란 곰 때문에 관광객이 찾는 곳이 되었다. 푸른 곰은 밖에서 컨벤션 센터를 훑쳐보는 듯한 자세로 서 있다. 그러나 센터 안에서 보면 푸른 곰이 센터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뭔가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3** 색

▲ 아전트(Agent, Lawrence) 영국-미국(1957~2017) 무슨 말인지 알겠어(여리 상류, 콜리머 콘크리트/12x6.7x3m/2016년) 광활한 무른색으로 채색된 거대한 곰 조각이 발당 안을 울려대는 설치 미술 작품이다.

**4** 명암

▲ 리카손(Lisson, Dmitry) 작가(1969~) 사탕이 예술(앤디 워홀의 100x100cm/2022년 단색의 색 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 넣어 머그 컵의 작품을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선**

▲ 윤기현(한국/1973~) 가위(70x71cm/한지예 수묵 채색/2010년) 단순하고 깔끔한 선으로 그린 다양한 가위 모양 손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하나의 큰 주먹 모양 손 형태를 만들었다.

**면**

▲ 투질카니(Tuzhikina, Maria) 에스파냐/생년 미상) 크리스탈 볼(앤디 워홀의 아크릴/30x30cm/2022년) 삼각형 면을 연속해서 사용하여 단순화한 도끼를 그렸다.

**형**

▲ 머피(Murphy, Michael) 미국(1975~) (하) 황금 점프맨 크릴 판(2.7x2.7x1.8m/2014년), (위) 다른 방향에서 본 작품 신발 모양 아크릴 판이 무작위로 설치된 것 같지만 특정 방향에서는 점프하는 인물이 보인다.

**양감**

▲ 아렌트(Aren, Hans) 독일-프랑스(1886~1966) 새의 상자(아크릴/24.8x22.9x13.3cm/1963년) 불확한 대역 영역에서 입체감과 무게감이 느껴진다.

**질감**

▲ 도널드슨(Donaldson, Samantha) 영국(1987~) 라임색과 금홍색 암석의 내부(유리/21.5x19.5x11cm/2021년) 작품을 직접 보지 않아도 표면의 메이크업은 질감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명암**

▲ 판톤트호르스트(Jan Hartmann, Gent) 네덜란드(1922~1959) 종래(미국에 유채/71x104cm/1925년) 밝기 효과를 극대화하여 다양한 강조된 키아로스쿠로를 사용하였다.

#### 3 머피, 황금 점프맨

신발 모양의 금빛 아크릴 판이 무작위로 걸린 듯 보이지만 관람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덩크하는 사람의 형상이 보인다. 머피는 3차원 공간에 떠 있는 평면 이미지로 구성된 착시 작품을 기반으로 관객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공간과 시간의 흐름이 녹아든 경험의 예술을 만들고 있다.

#### 4 도널드슨, 라임색과 금홍색 암석의 내부

작가는 유리라는 재료의 표현성에 매료되어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한다. 뜨거운 유리를 불어 여러 겹의 색상 층을 만든 다음, 절단하고 연마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암석 결정인 지오드(Geode)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과 환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나드는 유기적 형태의 작품이 특징이다. 매끄러운 표면에 빛과 움직임이 굴절되며 나타나는 광학적 효과도 작품의 매력을 더한다.

#### 5 판톤트호르스트, 종매인

테이블 위의 촛불에서 나온 빛의 효과를 그림에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밝고 어두움의 대비가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그림 속에 광원을 기준으로 밝고 어두운 부분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회화적 기법을 키아로스쿠로라고 한다.

### • 지식 창고 | 명암, 그리고 빛

빛을 비출 때 생기는 밝음과 어두움, 또는 그런 정도를 명암이라고 한다. 명암은 대상에 실제감과 입체감을 주는 중요한 조형 요소이다. 과거에는 작품 속 명암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빛을 표현했다면 최근에는 빛 그 자체를 회화와 조각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형 요소로서 빛이 쓰이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 스킵피네티(Scorpiniti, Cristoforo)** 이탈리아/생년 미상) 희망의 빛(종이에 야광 물감/30x40cm/제작 연도 미상) 어두운 곳에서 그 자체로 발광하는 물감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 플래빈(Flavin, Dan)** 미국/ 1933~1996) 무제(형광등, 설치작품/2.4x2.4m/1966~68년) 일상의 재료인 형광등을 사용하여 빛 그 자체를 예술로 만들어냈다.

### • 작가를 소개합니다 | 점의 여왕, 구사마야요이

일본의 조각가이자 설치 미술가인 구사마 야요이(草間彌生/일본/1929~)는 'Polka dots'라고 부르는 물방울 무늬의 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강박증과 편집증을 스스로 이겨내려는 노력 그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이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하얀 좁쌀들을 실제로 그립어내기 위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동에서부터 작품의 정체성을 만들었다.

“나는 나를 예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유년 시절에 시작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술을 추구할 뿐이다.”

**▲ 자화상(종이에 펜/53x45cm/1986년)** 점과 선을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개성적으로 표현하였다.

**▲ 노란 호박(강화 플라스틱/높이 2m/1994년)**

## 1 브로츠카야, 드림캐처

이 작품은 가늘게 자른 색종이를 펜이나 연필에 말아 유연하게 만든 뒤 입체적으로 세워 붙이는 페이퍼 퀴링(Paper Quilling)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브로츠카야는 이 기법을 적용하여 스케치, 그래픽 디자인, 공예가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다.

페이퍼 퀴링 기법은 평면에 3D 효과를 주기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이다.



▲ 종이를 접어 입체적으로 붙이는 모습

▲ 헤바라기(페이퍼 퀴링/52×57cm/2022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우크라이나 국기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 2 문신, 하모니

<하모니>는 좌우 대칭(시메트리, symmetry)의 공간적인 구조와 형태로 신비롭고 무한한 생명감을 표현하는 조각 작품이다. 문신의 조각 작품은 기하학적 형태를 기반으로 곤충, 새, 식물 등을 연상시키는 형태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문신은 한국, 일본, 프랑스를 오가며 회화, 조각, 공공미술 등 다양한 분야와 경계를 넘나들어 작업하였다. 그는 직접 자신의 미술관을 디자인하고 건축하여 작품을 영구히 기념하였다.



▲ 자화상(캔버스에 유채/94×80cm/1943년)

노예처럼 일하고  
서민과 함께 생활하고  
신처럼 창조한다.



▶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전경  
문신이 생전, 14년에 걸쳐 디자인하고 건축하여 1994년에 개관한 미술관이다. 그의 사후 아내 최성숙이 2003년 창원시에 기증하였다.

## 생명을 불어넣는 조형 원리

조형 요소가 표현되는 방법과 규칙에 맞춰 미술 작품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조형 요소를 구성하는 방식을 조형 원리라고 한다. 여러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떤 조형 원리가 두드러지는지 탐색해 보자.

### 조형 원리의 종류

반복, 강조, 대비, 비례, 균형, 리듬, 동세, 변화, 조화 통일

#### ● 반복



▲ 우라이판테(Uriarte, Ignacio/독일/1972-) 크레펠트 원도 시리즈(중이에 마지/실지 작품/2020년)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똑같은 크기의 작품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배치하였다.

#### ● 강조



▲ 루스(Russ, Torsten/독일/1955-) 집안의 상 히에로니무스(캔버스에 연필, 약/200×150cm/2012년) 흑백 그림 중 인물에게만 붉은색을 사용하여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였다.

#### 2 대칭



▲ 문신(한국/1923-1995) 하모니(청동/68×84.5×28cm/1981년) 동일한 형태의 구조물이 좌우 대칭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어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 ● 리듬



▲ 슈뢰더(Schroeder, Virginie/프랑스/1976-) M and Ms 사랑 폭탄(캔버스에 아크릴/122×122cm/2022년) 구불구불한 선에서 부드러운 리듬감이 느껴진다.

#### ● 동세



▲ 강덕봉(한국/1978-) 빨강 1-2(PVC 파이프/55×110×30cm/2016년) 파이프의 길이와 색깔을 달리하여 인물이 뛰어나는 형상을 전상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힘차고 활발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 4

## 3 강덕봉, 변장 1-2

작가는 현대인의 삶을 '속도'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변화와 속도 속에 갇혀버린 인간상을 포착한 듯한 그의 조각 작품을 보면 인간의 형체는 사라지고 마치 혼적만 남은 느낌을 준다.



▲ 00:00:00 I (PVC 파이프, 우레탄 페인/410×32×161cm/2013년)

### 표현 활동 더하기

페뵈대로 조각 작품 제작해 보기

- 1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자세를 구상한다.
- 2 페뵈대를 잘라 붙여 입체적인 형상을 만든다.



## 작품에 녹아든 조형 요소와 원리

미술관에서 만나는 작가의 작품,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에는 조형 요소와 원리가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조형 요소와 원리가 어떻게 작품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알아보자.



▲ 김소희 외 14명(학생 작품) 픽셀 아트 벽화(부산/캔버스에 포스터 롤/20×200cm) 시각 형 면으로 그린 캐릭터를 모아 벽화를 만들었다.



▲ 이서연(학생 작품) 이상한 나라의 여왕(종이에 펜, 연필/25×20cm)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흰, 흰, 흰 면으로 표현하였다. 반복, 대비, 균형, 변화의 조형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 5



▲ 바스콘셀루스(Vasconcelos, Joana/포르투갈/1971-) (좌) 발키리 맘벳(종이 재로/75×17×12.8m/2022년) (우) 제작 과정(아마리카 페인)을 사용한 연필, 꼬마 블록(아마리카 페인), 스티로폼, 조형 종이 반복적으로 어우러져 화려한 색과 질감, 역동적인 형태를 두드러지게 한다.

작품에서 어떤 조형 요소와 원리가 안났는지 알아볼까?

## 5

### 표현 활동 더하기 실을 쌓아 풍경 표현하기

▶ 준비물: 나무판, 못, 색실, 가위

▶ 제작 과정

- 1 나무판에 표현할 풍경을 연필로 스케치한다.
- 2 스케치 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박는다.
- 3 영역별로 색을 정한 다음, 못과 못 사이를 색실로 엮는다.
- 4 다양한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엮어 색실의 밀도가 높은 풍경을 완성한다.

### [유의점]

- 1 못을 사용하는 데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두꺼운 폼 보드에 정착 펠티지를 붙이고 못 대신 핀을 사용한다.
- 2 펠티지가 없으면 핀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안보람(학생 작품) 불빛으로 물든 가을산 (나무판에 못, 실/30×30cm)



### ● 작가를 소개합니다 | 피에트 몬드리안

신조형주의의 창시자 피에트 몬드리안은 자연을 단순화하여 수직과 수평의 선, 제한된 색의 단순한 조형 요소만으로 기하학적인 추상화 작품을 그린 화가이다. 그는 테오 판 두스부르흐가 만든 데 스틸(De stijl) 예술 운동의 중요한 구성원이었으며 몬드리안이 발전시킨 신조형주의는 현대 미술은 물론 패션, 건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 1 몬드리안(Mondrian, Piet/네덜란드/1872~1944) 자화상(캔버스에 유채/71×88cm/1918년)
- 2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II(캔버스에 유채/45×45cm/1930년)

### 5 바스콘셀루스, 발키리 맘벳

이 작품은 1781년 자유를 위해 법정 투쟁을 벌여 매사추세츠에서 노예 제도를 불법화하는 데 도움을 준 노예 여성인 엘리자베스 맘벳 프리먼(Elizabeth Mumbet Freeman)을 기리며 제작되었다. 그녀의 이름에서 맘벳(Mumbet)을 가져오고 북유럽 여성 전쟁 여신의 이름인 발키리(Valkyries)를 붙여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작가는 여성의 성 역할과 사회 편견과 관련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레이스, 크로세, 뜨개질 등 다양한 수공예품으로 거대한 조각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세드윅(Sedgwick, Susan/미국/1788~1867) 엘리자베스 프리먼의 초상(상아에 수채화/7.5×5.5cm/1811년)

### 4 김소희 외 14명, 픽셀 아트 벽화

정방형의 캔버스에 1×1cm사이의 격자를 그려 넣은 다음, 사각형 색면을 채색하여 만든 작품이다. 여러 명의 작품을 한데 모아 합치면 큰 벽화를 완성할 수 있다.

### 표현 활동 더하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픽셀 아트 일러스트

▶ 준비물: 휴대 전화나 태블릿 PC

▶ 제작 과정

- 1 휴대 전화나 다른 디지털 도구에 픽셀 아트를 제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 2 아이디어 스케치 종이를 이용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작품의 형태와 관련한 계획을 세운다.
- 3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각형 면을 채색하며 작품을 완성한다.
- 4 완성된 작품을 이미지로 저장한다.

※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색채 선택과 변경이 편리하여 훨씬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다.



▶ 애플리케이션 구동 화면



▲ 김지민(학생 작품) 상큼 레몬 (디지털 도구/가변 크기)



